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55 호 현대불교
2007년 11월 28일(음력 10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19

나라는 욕심이 없으면 싱그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한번 이런 점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전에 나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년 동안은, 거리로 다니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국수를 서로 사 먹으면서 한 3년 그렇게 쫓아다녀 봤습니다. 낮에는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저녁이 되면 그 사람네들을 한번 검토해 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얻어오고 흠쳐가지고 오지 않으면 막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양념이빠가 어그러지도록 때 맞는 애를 봤습니다. 그 추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지고 들어가면 되나 하고 어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훑훑 불면서 강통을 옆에 놓고 돈을 세는 걸 봤습니다. 돈을 세어서 얼마는 다른 데 넣고서 고기 몇백 원 남는 것을 입이라도 축이려고 주머니에다 넣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새끼들이 남의 새끼입니까? 언제 내 새끼가 될는지, 언제 내 부모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아니겠으며 어느 아픈인들 내 아픈 건 어딴 겁니까? 그런 걸 볼 때 나는 개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전체 벌레까지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기가 죽고 배고파 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탄 모습으로 가면 사공창도 돼지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인다면 겁니까. 욕심이 꼭 찼으니 벗질단도 금으로 보일 수밖에. 벗질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석을 해놓은 건 줄 알아!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고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요.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요다음 또 책바퀴 돌듯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또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 몇 바퀴나 돌아왔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그 고기 한 점을 보고서 고기로 보았습니다. 한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四生)의 그릇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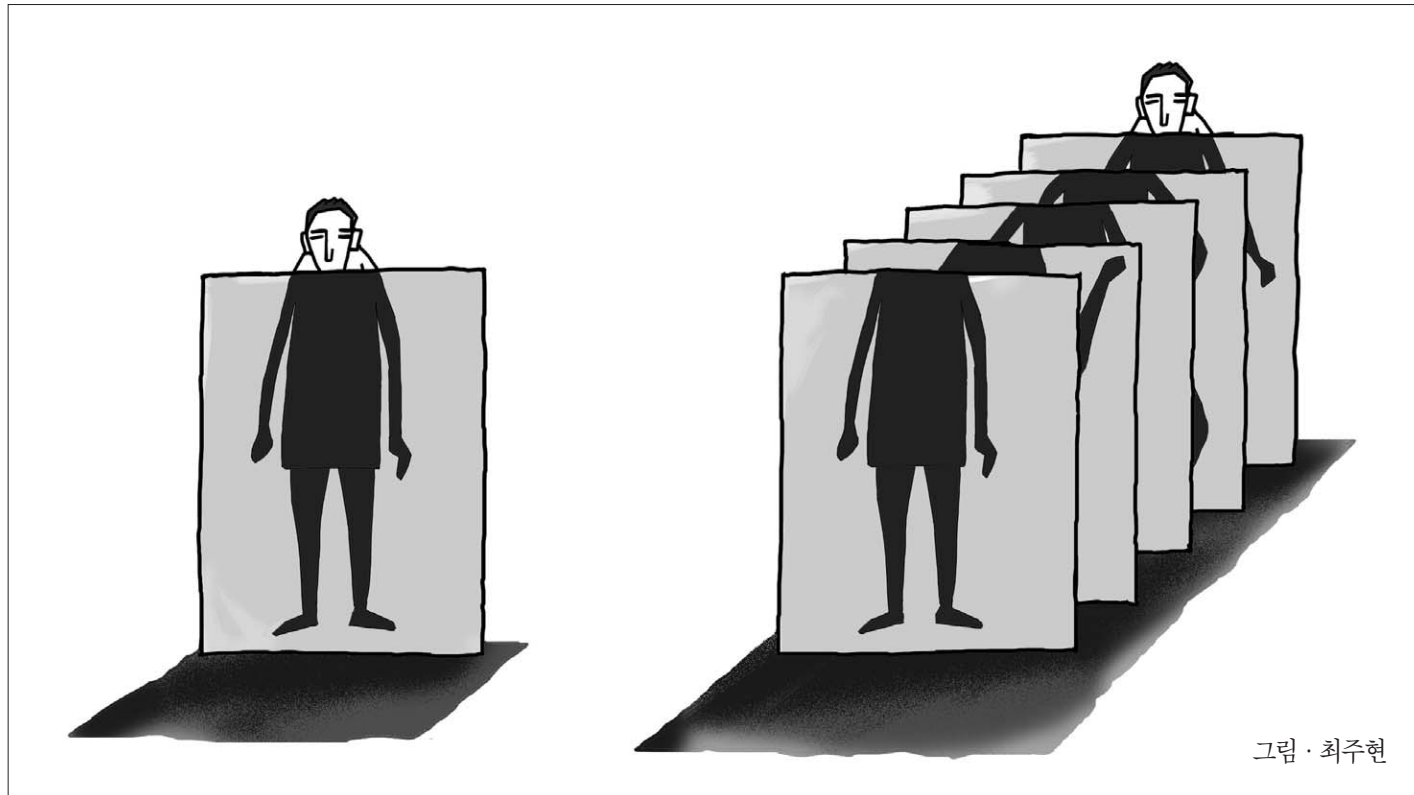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생의 그릇 즉, 소 한 마리로 보았다 이 소입니다. 소 한 마리로 보인다면,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만 사생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각 하나에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기 한 점.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딱 보는 순간에 소로 몇 바퀴나 돌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로만 몇 바퀴 돌게 아닙니다. 짐승으로 얼마나 돌았으며, 얼마나 쫓고 쫓기고 먹혀왔으며,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걸 한 눈에, 한 찰나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입에다, 보는 순간 벌써 자기는 요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딱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치워버렸으나 자기가 똥더랍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소 한 마리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보니까 자기가 똥바라. 자기가 똥이니깐 두드러지지도 않았는지? 자기가 또 거기서 소 한 마리를 꺼내니까, 소를 꺼내도 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생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넣었는데 사람으로 생신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꺼냈어도 소의 사생이 들은 그릇이나 사람의 그릇이나 똑같이 그 사생은 마찬가지로, 차원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라는 거하고는 달라. 소라 하면 새끼를 두 마리도 낳고 세 마리도 낳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드물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 90% 100% 다. 그렇지만 그런 승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 낳는 사람도 있긴 있지.

내가 나라를 승성, 각각! 한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각각 나라를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낳죠? 알도 많이 낳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이런 거는 벌써 내 마음 속에 흐르는 피의 그 생명들이 내가 나라고 하고 싸우면서 서로 나오거든. 서로 나와! 양보심이 없어! 양보심이 없으니깐 그냥 나올 수밖에. 다섯도 좋고 넷도 좋고 열도 좋아.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양보성이야.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리다' 하는 양보성이 있어. 그래서 불성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생명이다 이거야. 고등생명이다 이거야. 고등동물이다 이거야. 생명은 다 마찬가지로 차원이 달라.

내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말을. 사방 팔방으로 깊이 있어서 이리도도 들어갔다 저리도도 들어갔다 이러거든, 그냥. 그러니 하하하, 양해하시고 깊이 잘 들어주세요. 그 뜻만 알면 되니깐요. 나는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기웃거리면서 애길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골목 골목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바로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범망이라고 합니다. 이 공중의 범망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으세요. 어느 골목을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그래서 생명 자체가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억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얽고있던 게 그냥 툭툭 벗어지는 겁니다. 벗어지느냐, 더 지지하게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뭐

가 원통합니까? 이 몸통이가 공(空)해서 한 찰나에 살다가 한 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몸통이, 내일 죽으면 어떻게 오늘 죽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라의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욕심이 없다면 싱그럽게 사할 수 있을 텐데, 한 찰나찰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이해의 생활은 골목 골목에서, 그 생활이 말입니다. 솟아 흐르듯이 좋게 말입니다, 싱싱하고 좋은데, 이걸 모르시고선 자꾸 몸 하나에 깃달리니 전체에 깃달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수만 생명들이 들어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피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살 속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음죽거리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 중생들이 다 받쳐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가 딱 눈, 코가 의젓하게 달리고, 손발이 딱 있어서 평발을 해가지곤 딱 밟고 다니면서, 그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밟고 다니게 해드리는데 상구보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화중생은 모르고요?

내 몸통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몸통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이것이야. 내가 태어난 태초고, 나로 태어난 이 몸통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두지 남한테 '무(無) 자 화두를 받는다, '이 뭣고?' 화두를 받는다 해서 실과를 익게 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서 따온 실과는 무의미지 못합니다. 탄 나무에서 따온 실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고 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씹습니다. 내 나무에서, 잘랐든 못랐든 내 나무에서 실과가 무의미어만 가지 맛이 납니다. 만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 도리를 아신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늑다라삼삼삼삼보리 무의 법을 그대로 쓰시고, 우의 법이 돌이 아니게끔 쓰시는 까닭에 이름 해서 보살이라고 하고 이름 해서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이름 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도 차분하게 못했지만, 앵커리지에 처음에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나 고급하고 여유가 없

20면으로 계속

놀라운 건강법! 氣血순환법 강좌

www.chgg.co.kr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수족냉증, 불면증, 우울증, 하지정맥류,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날린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5일이면 OK!

진통제 없이는 살수 없는 수십년된 만성두통 5일이면 쾌유!
5일안에 쾌유되지 않으면 수련회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氣血순환법은 -

도가에서 수천년간 비전되어온 수련법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 않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를 맑게하여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 지방지회 모집중 ※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1993년 창립 천일 의학기공 본회: 02)3436-3206~7

천일 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형제하는 날입니다.

- 창립 15주년 특별이벤트 -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하기 무료 증정!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놀라운 반지!
강력하고도 놀라운 '태양에너지'반지를 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랑보다도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하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반지나 팔찌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